

국립공원의 야생화

아름다운 꽃차례...향기로운 기름 추출



<140> 꽃향유

꽃향유는 꿀풀과에 속하는 여러 살이 풀로 우리나라의 중부 이남지역의 양지 혹은 습기가 많은 반그늘 풀숲에서 자란다. 꿀풀과의 일반적인 특징인 네모진 줄기, 독특한 향기, 많은 꽃을 가지고 있다. 향기로운 기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꽃이 아름다운 향유라는 의미로 '꽃향유'라고 이름 지어졌다.

(박성배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자원보전과장)

“최고의 요리왕 뽑습니다”

광주 서구 오늘 맛자랑 경연대회

광주 서구가 서구 최고의 요리왕을 뽑는다. 광주시 서구(청장 김종식)는 “10일 오전 11시 조선컨벤션 웨딩홀에서 전통음식을 발굴·육성하고 남도음식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제7회 서구 음식인 맛자랑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일반음식점 16개팀이 출전해 향토음식과 전통한식, 퓨전음식 등을 선보인다. 행사는 출전팀의 출품음식 조리를 시작으로 요리심사, 의식행사, 시상식, 출품음식 시식 및 초청가수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우승자는 7명으로 구성된 전문 심사위원이 전통의 맛과 독창성을 최우선으로 음식의 색깔, 모양의 조화로움, 영양성, 건강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가려지며 유품상 1개팀, 웰빙상 5개팀, 솜씨상 5개팀, 창의상 5개팀 등 참가팀 전원에게 상패가 주어진다.

/김경인기자 kki@

‘다문화 외가 보내주기 수기’ 대상 나길현군

“형편 어려워 필리핀 못가요”

다문화가정의 한 자녀가 수기 공모에서 수상했지만 여비를 마련하지 못해 외가인 필리핀을 가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9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본랑동에 사는 나길현(12)군은 최근 어린이재단이 주최한 ‘다문화 외가 보내주기 수기 공모전’에 서 대상을 수상해 부상으로 3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나군은 아버지(47)와 어머니, 동생 2명과 함께 어머니의 고향인 필리핀을 처음으로 가려 했지만 어려운 가정 환경 때문에 뜻을 접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국민 기초수급자로 구청 자활사업을 하며 어렵게 가정을 꾸리고 있어 상금 말고도 최소 400만원이 더 필요하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10여년 전 마을의 빙집을 끌라 어렵게 정착했지만 최근에 집주인이 나타나 살고 있는 집마저도 내줘야 할 형편이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나군은 수기에서 화목한 가정과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진솔하게 적었다.

사연을 접한 본랑동주민센터는 함께 광산 본랑동위원회와 함께 나군 가족이 12년만에 필리핀을 갈 수 있도록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나군의 사연을 주위에 전하고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모으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필리핀 방문에 도움을 주려면 본랑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062-960-7866)에게 전화해 상의하면 된다.

/중부취재본부=기원태기자 wtkee@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김덕봉(전 국무총리실 공보수석 비서관)·정소연씨 장남 심우균 신동선·이남숙씨 막내딸 보라양=11일(금) 오후 6시 30분 서울 컨벤션 웨딩홀 3층(구 흥인지미널 예식장)

▲이준근(한국마사회 광주지점장)·한영순씨 장남 병우군 김종화·이우정씨 장녀 소영(밸런트)양=12일(토) 오후 5시 30분 서울 뉴힐튼 호텔 3층 그랜드볼룸.

▲양원승(사업)·정연숙씨 장남 나라군 이상재(광주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이영숙씨 장녀 현양=12일(토) 오후 12시 10분 이화웨딩 캐슬(동구 용산동) 2층 행복홀.

▲강찬원(전 신흥금속대표)·이정화(평동지역 아동센터장) 쌍 남기 범군 이성구·안은희씨 장녀 은아양

동창·동문회

▲60주년 나주고등학교 충돌문화 학미음 체육대회=12일(토) 오전 11시~오후 4시 모교운동장 061-332-3115.

▲광주장애인인권센터 무료 상담=장애인을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062-369-0420(1577-5364).

▲습관성도박(경마, 주식, 복권, 인터넷도박, 성인온라인) 및 가족 대상 전문상담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

▲중고컴퓨터 기증하실 분=광

장흥 출신 강경량 경찰대학장 내정자

“첫 모교출신 학장 책임 무겁습니다”

“모교 출신으로 경찰대학에 부임하게 돼 기쁩니다. 경찰대학다운 대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미래 경찰을 이끌 엘리트 일부 양성을 목적으로 경찰대학이 설립된 지 30년 만에 첫 모교 출신 학장이 탄생했다. 9일 단행된 경찰 간부인사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대학장에 내정된 강경량(48) 전북지방경찰청장.

그동안 경찰대학 졸업생이 이 대학 보직교수나 부장 등을 맡은 사례는 많으나 모교 출신이 학장이 된 경우는 경찰대 설립 30년 만에 강 청장이 처음이다.

장흥이 고향인 강 청장은 광주 대동고

를 졸업한 뒤 경찰대 1기생으로 입학했

으며, 일선서장 경험이 풍부하고 대통령 실 치안비서관, 경찰청 혁신기획단 업무 혁신팀장, 경찰대 교수, 국방대학교 과정 근무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운동 만능

에 뛰어난 업무 능력, 호탕한 성격으로 정평이 나 있다.

강 청장은 지난해 9월 전북경찰청장

으로 부임한 후 꿈꿔온 일처리와 성과에 따른 인재 배치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업무의 정확성을 중시하며 직원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도 화를 내는 대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타이르는 스타일로 온화하고 신중한 성품의 소유자다.

강 청장은 이강역 서울청장 내정자와 함께 경찰대 1기 선두주자로 손꼽히고 있으며, 현재 유일한 호남지역 출신 경찰 고위직이다.

강 청장은 “사랑하는 모교에서 후배들을 지도하게 꾸며 기쁘다”며 “경찰대가 개교한 지 한 세대를 맞은 만큼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고 후배들의 모범이 되도록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대학은 국가차안 부문에 종사할 경찰간부 후보생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시킨다는 취지로 1981년 설립돼 1985년부터 졸업생을 배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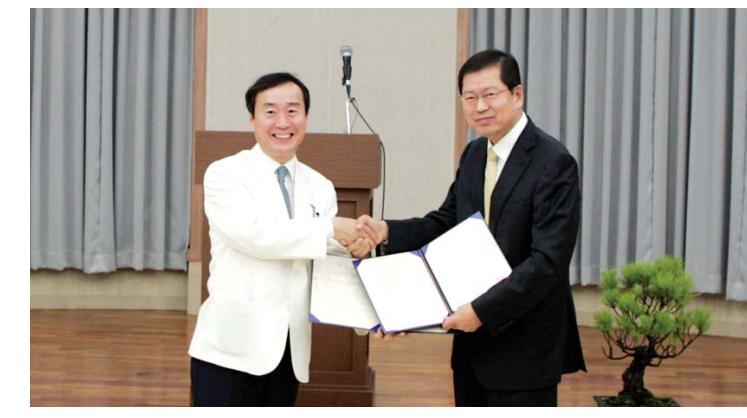
김혁종 총장 현장실습 러시아 국립대 학생 격려



김혁종 광주대 총장은 최근 국내에선 처음으로 광주·전남의 사회복지법 인시설에 장기간 머물며 현장실습 및 봉사 중인 10명의 러시아 국립대학 학생들을 격려했다.

〈광주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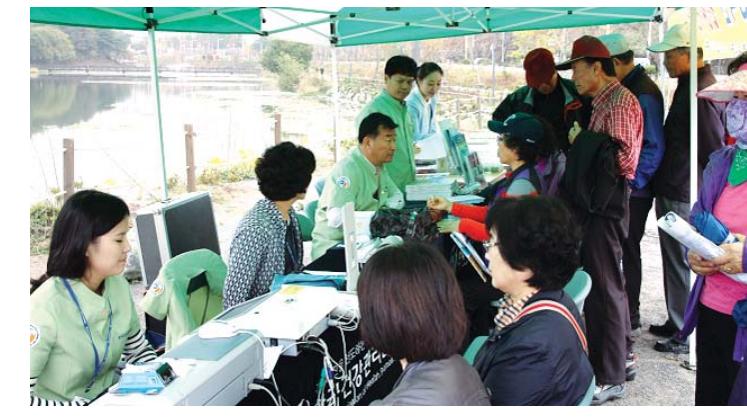
조선대병원-서울아산병원 공동연구 진료 협약



조선대병원(병원장 김민우·사진 왼쪽)이 지난 7일 오전 병원 히종현홀에서 호남지역에선 유일하게 서울아산병원(병원장 박성욱·오른쪽)과 공동연구 진료기관 협약식을 체결했다.

〈조선대병원 제공〉

광주체육회·원광대 한방병원 ‘시민건강지킴이’



광주체육회와 지정협력병원인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한국건강관리협 광주·전남지부가 최근 풍암호수공원 제방공장에서 건강상담 및 의료처방 등을 통한 ‘시민건강지킴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광주체육회 제공〉

나주경찰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나주경찰서(서장 박병동)는 9일 나주 왕곡농협 교차로 등 15개소에서 교통경찰·시민단체 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사고 감소 캠페인을 벌였다.

〈나주경찰서 제공〉

“폐지 줍고 용돈 모았어요” 몽골 친구들에 성금

광주시청소년수련원

방과후 아카데미 ‘마인’

방과 후 청소년아카데미 학생들이 글로벌 선행에 나서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 방과 후 아카데미 마인(MINE)은 40여 명의 학생들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실천하자는 취지 아래 ‘지구수비대’를 조직, 그동안 콩고 등 3세계 국가의 어려운 청소년들을 돋는데 앞장서왔다.

각자의 기부자금통을 만들고 용돈과 폐지를 모아 성금을 모았다. 또 방과 후에 아카데미에서 배운 오카리나, 사물놀이, 동요 솜씨로 공연을 해 그 수익금을 성금에 보탰다.

학생들은 그 성금을 콩고·몽골 등의



광주시청소년수련원 방과 후 아카데미 마인 학생들이 몽골청소년학교 견립기금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소년들에 보내 그들이 응기와 희망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왔다.

9일 마인학생들은 또 한 번의 선행을 실천했다. 최근 모인 성금 160만원을 몽골 청소년들의 학교 견립을 위해

쾌척, 전달식을 가졌다. 마인학생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재활용 장터 수익금 등을 모아 또 다른 나라의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돋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현기자 kih8@

농협 광주본부 노인 30명 백내장 수술비 무료지원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조영조)는 백내장을 앓고 있는 농촌지역 노인 30여 명을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비 무료지원



사업’을 이달말까지 실시한다.

이에 앞서 농협 광주본부는 지난 2007년 상무지구 이연안과 병원과 의료서비스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매년 광주관내 지역농협에서 추천한 30여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시력검진이나 처방과 함께 중증 백내장이나 녹내장 수술을 NH보험에서 수술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후 결정 062-362-3628, 010-9103-9103.

부음

모집

▲(주)한양토건 운전기사=5t 덤프기사(유경험자 우대) 급여는 상당

부문)씨 모친상=발인 11일(금)

광주 첨단병원 장례식장 5호실 062-601-8095.

▲문순자씨 별세 김관옥·옹옥·창

죽·석주·영주·월순씨 모친상=발인 11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

분향소 062-231-8902.

謹

故인의 夢福을 빙니다

弔

故 신명철 님(남/85세)

子/子婦 : 신윤호/선숙란, 정호/국자미
女/婿 : 신상호/김상곤, 상희/전성환,
윤경/김현경, 결선

•발인: 11월11일 9:00 •장지: 북구 효령동
•연락처: 250-4407

故 박준숙 님(여/75세)

子/子婦 : 김용래/임순숙, 유품/박현경
女/婿 : 박현수/임현경, 윤현/김승만
•발인: 11월10일 08:30 •장지: 광주 국립현충원
•연락처: 250-4406

故 유헌상 님(남/100세)

子/子婦 : 유인수/임정선, 조수연/정선숙
女/婿 : 유동현/임현경, 조수연/정선숙
손자 : 유희준, 유희준, 유희준, 유희준
•발인: 11월10일 08:30 •장지: 광주 국립현충원
•연락처: 250-4411

故 안기수(미카엘) 님(남/74세)

未亡人 : 김애자
子